

코로나19 국제적 위기 속 빛나는 팀워크

NEWSIS

홍찬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5월1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긴장이 감도는 인천공항에 출근해 있던 5월21일 같은 회사 국제부 후배 문 기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선배 지금 중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3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귀국하려던 중국인들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발이 묶였대요.”

“중신사(中新社)라는 중국 반관영 언론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쓴 보도인데 10여 명이 현재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고, 이들은 가짜 항공권 구입 등을 이유로 발이 묶인 것 같대네요.”

“다른 언론에서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인데 선배, 혹시 공항 관계자들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좀 물어봐주실 수 있나요?”

15년 차 기자의 직감으로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 이 한국 공항에 발 묶인 것은 평소에도 작은 일이 아닌데 코로나19로 비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만약 이들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이미 코로나19에 감

염이라도 됐다면 이들은 환승구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급한 마음에 나는 공항 관계자 A를 찾아갔다. A는 중국인들의 환승구 체류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애초 ‘가짜항공권’으로 한국까지 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나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문 기자에게 카톡을 보냈다.

“문 기자, 다 확인해봤는데 환승구역에 중국인들이 없대요.” (나)

“아... 그럼 중국 언론이 오보를 냈을 까요?” (문 기자)

“혹시 모르니까 내일 한번 다시 볼게요.” (나)

“네, 저도 중국 언론의 추가 보도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 기자)

그다음 날 공항 관계자 A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환승구역에서 중국인 6명이 체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A의 팀원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밤새 환승구역에서 머물고 있는 승객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중국인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만 중국 언론 보도처럼 이들 중국인은 가짜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1사1항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발이 묶였다. 1사1항 정책은 중국 민간항공국이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인데 자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취항지 한 곳을 선택해 일주일에 항공기 한 편만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사1항 정책으로 인해 이들 중국인 6명은 출발지에서 직항편을 구하지 못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유편을 선택했다.

이들의 출발지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했고, 지난 10~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외국인의 검역을 강화하면서 이들은 프놈펜행 여객기에도 탑승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의 파란만장 귀국길은 여기서 끝



4월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직항편이 적은 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국행 직항노선의 탑승도 기존의 70%로 제한돼 있어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체류하고 있었던 곳은 제1여객터미널로 서편에서 동편까지 거리가 1km는 족히 넘었고, 이들의 출발지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

었다.

내가 “중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발이 묶인 보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공항 관계자들이 밤새 찾아 확인했대요”라고 말하자 문 기자도 놀라워하는 반응이었다.

그는 중국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어제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배, 그럼 국제부에서 먼저 외신발로 기사를 쓰고 선배가 공항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을 쓰시면 되겠다”고 제의했다.

한참 뒤 국제부발 기사가 나갔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들 중국인들은 가짜 항공권 구입, 제2구간(인천~중국) 일정 위조, ‘건강코드’ 입력 오류 등 원인으로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우리는 “중국인들의 인천공항 체류는 사실이지만, 중국 항공 당국의 1사 1노선 정책이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세심한 외신보도 체크, 신속한 국내 취재, 공항관계자 노력으로 ‘중국인 6명 인천공항 수일째 체류…출국 못해 발동동’ 제하의 단독 보도라는 결실을 맺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문 기자와 ‘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기자는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4월27일 뉴욕 출발, 인천공항을 경유해 귀국한 중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썼다.

지린성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월8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기다리며 자리를 소독하고 있다.



3월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온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이동하고 있다.

한 중국 유학생이 4월19일 뉴욕발 아시아항공 OZ221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20일 도착했다. 이어 21일 아시아나항공 OZ303편을 이용해 창춘시 룡자(龍嘉)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자 검열과정에서 이 남성은 기침 등 의심이 발견돼 지린대 부속 제1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정상이고, 흉부 CT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진단

을 받았다.

그러나 창춘시 한 격리시설에서 의학적 관찰을 받던 이 남성은 25일 진행된 검사에서는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이 남성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최소한 10여 시간 머물렀다는 의미다.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을 감안할 때 체류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회사 데스크 간 조율로 우리 부장이 나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지시했다.

취재과정에서 이 중국 남성은 약 16시간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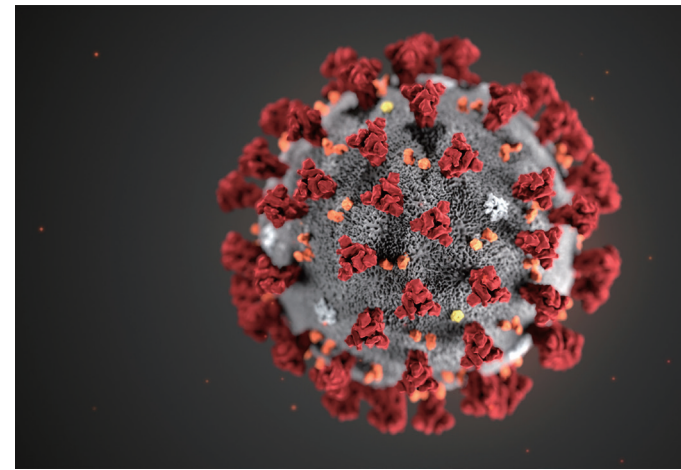
뉴시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검역당국과 해당 항공사는 확진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중국인 남성이 뉴욕에서 탑승했던 OZ221편에는 승객 109명이 탑승했었고, 이 중 6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검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린성위생건강위원회는 인천~창춘 노선(OZ303편)에서 이 남성과 동승한 밀접접촉자 54명을 지정 시설에 격리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발 인천공항행 탑승자에 대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불통 행보로 우리나라도 이 남성과 접촉한 밀접접촉자를 찾아야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보 없이는 밀접접촉자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4월13일 오전 0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월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일러스트 이미지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14일간 자가격리도 실시하고 있어 이 남성과 밀접접촉한 승객이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가격리 기간에 가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취재과정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에 대해서도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는 등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천공항은 아울러 환승객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16시간 체류한 중국

인...코로나19 양성’ 제하의 뉴시스 단독 보도는 방역 당국의 입장 표명으로 이어졌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남성이 인천공항에 장시간 체류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찾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시기적절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놓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방역 당국은 “환승구간에 있었던 다른 환승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노출이 있었을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났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의 보도가 방역 당국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건 당국 간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문제가 된 현상을 공론화시켜 위험을 경고하고 당국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위기 앞에서 이런 기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이번 두 차례 취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3월22일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